

94.12.30

脈·人地相得

— 禮山鄉土人物史 —

第一輯

禮 山 文 化 院

脈·人地相得

— 禮山鄉土人物史 —

第一輯

禮 山 文 化 院

序 文

禮山文化院長 李 恒 馥

歷史는 산 學問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역사와 인간의 因果關係가 필연적으로 究明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참다운 人間의 歷史가 전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烏山 任存城 今勿 우리의 고장 禮山을 빛낸 先賢을 照明하는 脈-人地相得을 엮어내기를 했다. 여기에는 땅과 사람이 서로 만나 더욱 빛낸다는 옛 사람의 말 그대로 人傑地靈의 사람(先賢)들을 자랑하고 후세에 전승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다.

歲月이 흐르고 學問이 달라지면서 옛 어른들의 그 훌륭한 자취들은 차츰 그 빛이 엷어지고 기억에서도 흐려지는 아쉬움이 없지않은 요즈음 일부층에서는 故意로 先賢의 그 德을 깎아 내리는 경향 마저 있는상도 싶다.

고장의 文化에 있어서 다양하고 또 뚜렷한 先人들이 있다. 그 人間像을 高貴한 文化的인 矜持인 深奧한 思想과 高高한 선비 精神, 그리고 國難克服을 위한 살신의 정신 그 슬기로운 일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후세에 전한다는 뜻에서 이 脈을 이번에 그치지 않고 繼續 刊行 하기로 했다.

뜻 있는 鄉人의 책적 있기를 合掌합니다.

目 次

韓文俊	1
金 紱	12
李山海	40
李榮元	49
李春元	70
禮山實學人新考	88
秋史의 學問과 藝術	99
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	120
秋史論：書法과 歲寒圖	131
滿空月面	144
湖西銀行의 經濟 自主的 意志	157
一篇 申鉉商 先生研究	181
春海 方仁根	216
李海文의 詩世界	241

韓 文 俊 (1117~1190)

— 우리나라 性理學의 元祖 —

崔 完 秀

韓文俊은 平章事 韓惟忠의 아들이다.

「高麗史」卷九十九 韓文俊傳에 의하면 그는 성품이 맑고 바른 위에 탈속한 기품을 타고났으며 어려서부터 글을 잘 지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부친인 한유충이 일찌기 남에게 “우리 가문을 일으킬 사람은 반드시 이 아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그의 출생 연도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高麗史」本傳과 卷二十 明宗世家 등의 기록에 의하면 明宗 20년(1190) 8月 25일에 74세로 逝去한 것을 추정할 수 있어서 睿宗 12년(1117) 생일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는 10세에 李資謙亂(1126)을 겪고 그 결과 새로 冊立한 宣平王後 金氏의 姻戚으로 그의 부친이 크게 發身하여 宰相의 位에 오르자 매우 행복한 소년시절을 보낸다. 그러나 19세 되던 해 妙淸亂(1135)이 일어나자 그의 討伐과정에서 大元師 金富軾과 樞密院 副使로 中央의 軍機를 장악하고 있던 그의 부친 한유충 사이에 不和가 심화되고 김부식이 西京을 평정하는 대공을 세우고 凱旋한 후에는 김부식 일파의 정치적 보복으로 禮部尚書修國史의 요직에 있던 그의 부친이 一朝에 忠州牧使로 좌천되어 지방으로 쫓겨나는 바람에 불우한 청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일 20세 때인데 이로부터 6년동안 한문준은 학업에 열중하여 과거준비에 몰두하였던 듯하나 김부식 일파가 조정의 요로를 장악하고

있는 한 과거급제는 불가능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드디어 그가 26세되는 仁宗 20년(1142) 3월에는 이제껏 門下侍中이라는 首相의 자리에 앉아 大權을 휘둘러 온 김부식이 致仕하여 물러나자 政局이 점차 바뀌어 同年 12月 28日에는 6년동안 外職으로 쫓겨나있던 그의 부친 한유충이 在僕射樞密院使判三司事라는 정부의 요직을 맡아 중앙으로 복귀하니 실로 人事 軍機 財政을 한손에 장악하는 樞要의 직책이었다.

이에 청년 한문준의 앞길도 활짝 열리게 되어 바로 文科에 급제하는 듯한데 『高麗史』 본전에서는 다만 仁宗朝에 登第하였다 하여 어느해 급제하였는지 확실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그의 부친이 중앙정계로 복직한 직후인 28세 때나 29세 때의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28세 때는 그의 부친이 試官의 우두머리인 知貢擧가 되어 직접 과거시험을 주관하고 이 시험에서 政敵인 김부식의 아들 金敦中(· ~1170)을 급제시키는데 본래는 2등을 매기었으나 仁宗이 그 아버지 김부식을 위로하기 위해서 1등으로 올려주게 하였다는 것이다. 김돈중은 김부식과 한유충이 거의 동년배이었던 것처럼 한문준과 거의 동년배이었던 듯하니 혹시 이 과거에 함께 보았던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그러나 29세 때의 과거에도 김부식의 專橫을 견제하여 그의 부친을 중앙 정계로 복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國舅 任元穀(1089~1156)가 知貢擧가 되고 역시 그의 부친과 함께 김부식에게 정치적 보복을 받았던 尹彥頤(· ~1149)가 同知貢擧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해 과거에 등과하였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才名을 세상에 떨쳤다고 하는데 好事多魔格으로 그가 30세 되던해 2月 28日에는 仁宗大王이 薨去하고 뒤이어 9月 17日에는 中書侍郎門下平章事太子少師의 재상직에 있던 그의 부친 한유충도 따라 돌아간다. 그래서 정치적 후견인을 동시에 잃게된 그는 이후 주로 外職으로 돌게 되었으니 長州(지금 威南定平郡), 長興, 南原 三郡의 副使와 南京(지금 서울)의 副留守를 역임한다. 그러나 그는 이르는 곳마다 惠政을 베풀어 칭송을 들었다 한다. 이 사실을 그의 門人 吳世材는 「남쪽三郡의 풍속을 소생시키고 동쪽 一州 백성을 어루만지셨네」라는 시를 지어 바쳐 축하하고 있다.

이렇게 그가 外職으로만 돌려서 人心을 얻은 것이 도리어 그의 生涯에 있어서는 轉禍爲福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주로 김부식계의 東京勢力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형편에서 文臣의 專橫이 극에 달하였던 毅宗(1147~1170) 년간에 그 주역을 담당한 장본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소외되어 지방관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武臣亂이 일어나자 생명의 위험은

키녕 도리어 명망있는 文臣으로 중앙정계에 招致되어 御庫를 관장하는 大府寺卿(從三品)의 지위에 오른다. 30이전의 어린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 후에 가문의 배경으로 內侍가 되어 부친의 권세를 믿고 除夕 讎禮놀이판에서 10여세 연상의 무인인 牽龍隊正 鄭仲夫(1106~1179)의 수염을 촛불로 태우는 만행을 저지르다 따귀를 얻어맞고는 도리어 그 부친으로 하여금 임금께 고하여 이를 처벌하게 하려 했던 김부식의 아들 金敦中이 左承宣(正三品)의 벼슬로 毅宗의 측근에 常侍하다가 武臣亂이 일어나자 紺嶽山으로 도망해 들어갔지만 수염을 태웠던 舊怨을 잊지 못한 정중부가 重賞을 내걸고 그를 찾았기 때문에 끝내 그 從者의 밀고로 잡혀 죽은 사실과는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었다.

무신난이 일어나는 것이 그의 나이 54세 때인 毅宗 24年(1170) 8月 29日이었다. 同年 9月 2日에 의종이 폐위되고 明宗(1171~1197)이 즉위하니 아마도 그의 나이 55세를 전후한 시기에 그가 중앙으로 陞差되어 왔으리라 생각된다. 亂後의 무질서 속에서 武臣간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여 大將軍 李義方(·1174)은 大將軍 李高(·~1171)를 살해하고 鄭仲夫의 아들 兵部尚書 鄭筠(·~1179)은 李義方 兄弟를 살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던 때이었다. 이 결과 정중부 부자와 정중부의 사위인

大將軍 宋有仁(· ~1179)이 대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특히 송유인을 정중부가 致任한 후에 門下侍郎平章事, 中書侍郎平章事判兵部事 등의 재상벼슬을 거치면서 조정을 농락하고 왕실과 다름없는 참람한 생활을 누린다. 뿐만 아니라 文臣勢力의 저항이 지방반란 형태로 나타나 金甫當亂(1173) 趙仁寵亂(1174) 등으로 이어지면서 잔존 문신들이 이와 연루되어 대량으로 학살당하는 혼란이 연속된다. 이런 渦中에서도 한문준은 性命을 온전히 보존하여 점차 요로에 진출하고 있으니 그의 行身이 얼마 만큼 조심스러웠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가 성품을 개결하게 타고나기도 하였겠지만 청년시절에 그의 부친이 정략의 희생으로 불운을 맞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자신이 다시 벼슬길에 나가자마자 부친의 서거로 정치의 핵에서 물러나 외방으로만 돌아야하는 불우한 세월을 겪는 동안忍苦를 몸에 익혔기 때문에 이러한 처세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60세 되는 明宗 6年(1176) 8月에는 大府卿으로 同知貢擧가 되어 과거 시험의 副試官이 되는데 이해의 新及第로부터는 무신난으로 폐지되었던 遊街張樂을 다시 시행하게 하여 文臣들의 사기를 복돋우는 일을 감행한다.

그런데 이해 正月 1月에 이미 公州 鳴鶴所에서 집권 무신들의 無法貧虐으로 생계를 잃은 천민들이 亡伊 亡所

伊 등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어 9月 9日에는 이들이 한문준의 고향인 禮山縣을 攻陷하고 監務를 살해한다. 조정에서 토벌군을 내려 보내려 하니 군사들이 “侍中 鄭仲夫 및 그 아들 承宜 筠 사위 僕射 宋有仁이 권세를 가로채어 제멋대로 부리었으니 南賊이 일어난 것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약 병사를 일으키어 토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이들을 없앤 다음에 해야 옳다”는 匿名榜을 내붙이고 이들의 無道한 橫暴을 성토했다. 그래서 鄭筠은 두려워서 벼슬을 내놓겠다고 하며 며칠씩 조정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이었다. 이들 南賊은 조정의 적극적인 토벌작전으로 다음해 正月 8日에 일단 투항하는데 2月 10日 에는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는 德山 伽倻寺를 점거한다. 그러나 결국 2月 9日 伽倻寺賊이 토벌되고 7月 20日에는 반란의 수괴들일 투항함으로써 난은 완전히 평정된다. 이사이 한문준은 고향이 반군에 유린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이들의 진압에 음양으로 많은 힘을 기울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결국 62세가 되는 다음해(1178)에는 軍機를 관장하는 樞密院 副使가 되고 6月에는 首席試官인 知貢舉使가 되어 과거시험을 주관한다. 그런데 이해 11月 정중부가 門下侍中으로 致任하고 宋有仁이 門下侍郎平章事가 되면서 그의 專橫이 시작되어 다음해 5月 9日에

中書侍郎平章事判兵部事로 승차하면서부터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그는 名儒로 국왕과 朝臣들의 倚重을 받는 樞密院使 文克謙(1122~1189)과 副使 한문준을 嫉視하여 기어이 사소한 트집을 잡고 국왕을 위협하여 7月 3일에 각각 尚書右僕射와 判司宰寺事로 좌천시킨다. 이에 송유인은 조정 상하의 인심을 함팍 잃게 되는바 진즉부터 정중부 일가의 발호를 분하게 여기고 이의 討滅을 꾀해 오던 義血 靑年將軍 慶大升(1154~1183)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9月 16일에 이들 鄭仲夫一家 三父子孀를 誅滅하얏 中外의 歡呼를 산다.

이제 義將 慶大升의 快擧로 사회정의가 되살아나게 되니 무력으로 만사를 해결하려하던 무신들의 횡포가 한 풀 꺾이는 듯하여 경주의 천민출신으로 무신난에 가담하여 무수한 살륙을 자행하고 毅宗의 허리를 꺾어 弑害하였던 李義旼(·~1196)같이 흉포한 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병을 핑계하여 고향으로 숨는다. 이런 형편에서 한문준처럼 명망있는 문신이 조정에 발탁되어 사회정화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64세가 되는 다음해 明宗 10年(1180) 12月 27日에는 參知政事(從二品) 太子少保로 승차하여 재상의 班列에 들게 되며 그 직위에 나가자마자 다음해의 첫 政事로 관리들의 승진을 年限制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관철시킨다.

무신난 이후 문란해진 吏道刷新을 위해 선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 아무 기준없이 멋대로 超遷을 자행함으로써 뇌물이 범람하고 執政者를 위협하는 등 갖은 非理가 횡행하였으므로 舊例에 따라 특별한 공로가 없는 한 文科及第者는 5년, 胥吏出身者는 8년마다 한번씩 균등하게 승급심사를 하여 승진시키는 내용이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자신의 이해와 상관이 있는 자들이 이에 잘 호응하려 하지 않자 “前朝 毅宗시대 文臣들이 각자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사람의 善惡을 잘못 판단하여 패망하기에 이르렀었는데 이제 다시 前轍을 밟으려 하느냐”고 호령하며 시급히 시행하라고 하니 모든 郎官들이 더 아무 말 못하고 시행하였다 한다. 이렇게 吏道를 바로잡은 뒤에 12月 28日에는 寶文閣大學士判禮部事를 자리를 옮겨 이제는 文教행정을 총괄하게 된다.

그리고 66세 되는 明宗 12年(1182) 6月에는 政堂文學(從二品)의 재상자격으로 다시 과거시험을 주관한다.

세번째 맞는 試官자리인데 그가 선발한 及第者들이 많이 후일에 名士가 되었으므로 「고려사」 본전에서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 세번 과거시험을 맡아보았는데 취한 바에 명사가 많았다.」라 기록하고 있다.

義將 慶大升이 大權을 쥐고 있는 한 무신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감히 무도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여 사회는 점차 안정되어가는 듯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경대승이 明宗 13년(1183) 7월 15일에 백성들의 哀痛속에 30세의 젊은 나이로 病死하니 세상은 다시 어지러워진다 이런 상황을 막아보려고 67세가 된 한문준은 12月 3일에 判兵部事를 겸하여 兵權을 장악하는데 반란을 두려워한 심약한 明宗이 다음해 2월에 경주로 中使를 보내어 李義旼을 불러 올림으로써 한문준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고 정국은 크게 불안해진다. 이미 정계의 원로가 된 한문준은 다음해 12月 30日 68세의 나이로 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로 명색 행정부 최고실력자가 되지만 무신난의 主役 중 가장 횡포한 李義旼이 大權을 장악한 채 百官을 총괄하는 尚書省의 실력자인 守司空左僕射(正二品)로 함께 재상의 班列에 들으로써 그에게 실권이란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 뿐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69세가 되는 다음해 9월에 星變이 있자 책임을 지고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나 국왕은 이를 허락치 않는다. 그해 12월에 그는 재상으로 契丹 歸化人 散員同正 尉貂가 病父를 고치기 위해 의원의 말을 듣고 자신의 허벅지살을 떼내어 그 부친에게 먹인 效행을 旌表해야 한다고 文克謙과 함께 上奏하여 풍속을 바로잡으려 애쓴다. 그러나 뒤이어 12月 28日에는 毅宗實錄의 내용에 무신들의 비행이 그대로

적혀 있어 자기들에게 불리하니 국사기록을 문신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하여 上將軍 崔世輔가 同修國史의 자리까지 차지하니 개결한 성품의 老宰相 한문준은 도저히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明宗 16년(1186)에는 70세의 나이로 致仕하여 官界에서 완전히 물러난다. 이제부터는 복잡한 세속사와 인연을 끊고 집안에 들어앉아 뜻이 맞는 高人, 韻士들과 더불어 詩酒와 逍逸로 餘生을 즐기게 되는데 73세때 그와 평생 뜻을 같이 하던 후배재상 文克謙이 68세의 나이로 그보다 앞서 서거하자 그도 난마같이 어지러워지지만 하는 세상사를 한탄하며 1년후인 明宗 20년(1190) 8월 25일에 74세를 一期로 고단했던 한 생애를 끝마친다. 明宗은 그의 訃音을 듣고 三日輟朝하여 哀悼를 표시하고 貞懿라는 諡號를 내렸다.

文臣배출이 포화상태에 이른 시기에 바로 그 문신으로 태어나서 문신들의 자체정화운동으로 벌이는 각종 문신반란을 몸소 겪으면서 자라고, 다시 청장년기에는 극도에 달한 문신의 횡포속에서 그 자신이 그 횡포를 미워하여 오랜 동안 지방관으로만 밀려다니다가 무신난이 일어나자 그들에게 명망있는 문신으로 인정받아 중앙으로 불리워가서 문신보다 몇배나 더 무도한 그들의 횡포를 견디어내며 國體를 유지하려 애쓴 그의 평생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高麗史

그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명제상이 있었기에 무신의 횡포가 더 극한으로 치달리지 않아 백성들의 숨통을 트고 살 수 있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高麗史」卷二十 明宗世家, 卷七三 選舉, 卷七五 選舉志三 銓注, 卷九八 金富軾傳附敦中, 卷九九 韓文俊傳, 文克謙傳, 卷一百慶大升傳, 崔世輔傳, 卷百二十一 尉貂傳, 卷百二十八 鄭仲夫傳附宋有仁, 李義方傳, 李義旼傳 「高麗史節要」 卷十二·十三 明宗代)

金 絳 (1488~1533)

— 故鄉을 생각 노래하다 —

姜 周 鎭

● 先生의 生涯

金絳先生의 이름은 絳요. 本貫은 光州金氏이며 字는 大柔요. 自庵은 그 號이다. 先生은 成宗 19年(1488年) 戊申 9月 28日 서울東部燕喜坊에서 태어났으며 中宗29年 甲午 職帖을 選授 받던 해 12月 16日 享年 47歲로서 禮山郡 西面王子池別莊에서 세상을 떠났다. 葬禮는 新岩面 宗敬里에 安葬되었다. 李弘植編 國史大事典에 卒年이 1533年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錯誤일 것이다.

先生의 先系를 보면 曾祖되시는 禮蒙은 禮曹判書로서 贈諡가 文敬公이며 祖父되시는 性源이며 成均館司藝에다가 贈吏曹 參判이며 父親은 季文이며 大興 縣監이요. 贈承政院左承旨요. 母親은 円城縣監인 全義李氏 李謙仁의 따님이었다. 自庵先生은 어려서부터 天質이 卓然하여 五, 六歲때부터 文才가 있어서 成人 氣風이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六歲에 지었다는 石榴詩를 보면 다음과 같다.

愛寶不愛身(보석만 사랑하고 몸을 사랑하지 않는)

堪笑賈胡愚(賈胡의 어리석음이 우습기도 하다.)

如何不自愛(어찌하여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剖身藏明珠(몸을배어 그속에 明珠를 감추는다.)

그리고 8歲때 지었다는 烏鵲橋의 詩를 보면 다음과 같다.

秋天河漢更 超超 (가을하늘 銀河水는 한껏 높은데)
鳥鵲何能屎彼遙 (鳥鵲이 어찌 능히 거기까지 미치랴)
誰播人間 傳好事 (누라서 이같은 사연을 人間에게 전
과 하였나)

碧空神會 不須橋 (신령한 견우직녀가 虛空에서 만나는
데 다리가 필요할까)

이와같이 6살 8살때에 이렇게 詩를 지었으니 그 文才
가 뛰어났음을 알수있다. 16歲때 長樂官記를 지어서 漢
城鄉試에 壯元하였고 20歲 되던해 9월 7일에 司馬試에
응시하여 生員進士 兩科에 壯元했는데 試驗官이 生員試
卷을 높이 평가하여 文章은 韓退之 같고 글씨는 王羲之
같다. (退之作之羲之書之) 라고 했으니 先生의 生員試의
글이 참으로 훌륭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 26歲 되던해
3월에 文科에 응시하여 韓忠榜에 別試科製에 及第하여
4月 2日 承文院副正字로 처음 出仕 하기 시작하여 清職
을 두루 역임했다.

지금 自庵先生이 官界에 出仕하여 두루 역임한 年譜
를 꾸며보면 다음과 같다.

27세 7月 8日 : 行弘文館著作

8月21日 : 守弘文館博士

28세 2月16日 : 守弘文館副修撰

10月 4日 : 守弘文館修撰加兼 承文校檢

- 11月14日：守吏曹佐郎
- 29세 7月17日：司果兼承文院校檢, 守成均館典籍選知
製教
- 9月 3日：守弘文館副校理兼 春秋館記注官 承文
院教理
- 30세 2月25日：守弘文館修撰兼 承文院校檢에 降資되다.
6月28日：降資된 것을 還授함.
7月 8日：弘文館副校理
- 10月19日：司諫院獻納
- 31세 1月 5日：守工曹正郎
1月17日：守禮曹正郎
1月19日：守弘文館校理
5月26日：守吏曹正郎
9月 3日：守弘文館應教兼春秋館編修館 藝文館
應教 承文院校勘
- 9月 日：弘文館典翰兼 承文參校
9月25日：守司諫院司諫兼 成均司成
- 11月17日：守掌樂院正知製教兼 成均司成 承文參校
- 32세 2月 5日：守弘文館直提學兼 編修官藝文官應教
(己卯) 成均司成 承文參校
- 3月13日：承政院同副承旨兼 春秋館修撰官
6月23日：右承旨 弘文館副提學知製教兼 經筵參
贊官 春秋館修撰官

위의 官職은 1519年 11月 15日 己卯士禍가 야기 되기 직전까지를 기록한 것이다.

金自庵의 官職은 주로 守職으로서 移拜가 빈번했던 것을 보아도 君主의 총애가 두터웠던 것으로 이해된다.

● 流 配 生 活

北門禍(1519) : 1519年 自庵이 32세 되던 해 己卯年 11月 15日에 北門禍(己卯士禍)가 일어남에 靜庵 趙光祖(1482~1519)와 冲庵 金淨(1486~1520)이 함께 下獄되어 鞫問을 받았는데 金自庵은 “臣의 나이가 32세로 本性이 庸愚하나 古人을 崇慕하고 師友 同志를 가려서 交遊하며 착한 자를 좋아하고 악한 자를 미워하며 다만 公論을 믿을 따름이었고 國論의 顛倒와 朝政의 日非는 臣의 뜻일 아니다”라고 공술하였으나 마침내 開寧으로 杖配도 되었다가 同年 12月에 죄를 추가하여 南海로 流配되니 이곳 竹林에 書堂을 마련하고 起居하였다.

獄中上疏 : 이렇게 開寧으로 杖配되어 죽음을 免하게 된 것은 당시 領相이요, 士林을 두호한 鄭光弼의 救援 때문이었다.

그의 獄中上疏 중에 <天日이 照臨하는 바로 無他

邪心이옵니다.> <다행이 임금님께서 직접 국문해 주신다면 한번 죽어도 恨이 없겠습니다.> 등등 간절한 내용이 있었으나 엄청난 土禍의 渦中에서 결국 그의 호소는 奏效하지 못하였다.

경남 南海流配로서 13年인 辛卯年에야 특사를 입어 禮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가 이어 臨陂로 量移하다는 명을 받고 自庵은 湖南으로 가고 家眷은 禮山으로 보냈다가 2年 後인 1553年(癸巳)에 풀려 나왔다. 그가 南海流配 중에 있을 때 考妣喪을 당했기 때문에 석방이 되자 禮山 宗敬里의 考妣墓所에 먼저 省墓했다. 이날 묘소 앞 土橋에 이르러서 馬上에 떨어져 重傷을 입은 病으로 世上을 떠났다. 향년 47세 였다.

宣祖 때 光國原從功一等에 올랐고, 逝去한 뒤 57年 되던 1591年(辛卯) 5月 22日 參先考縣監公에게는 承政院右承旨를 追贈하고, 先生에게는 嘉善大父吏曹參判兼 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를 贈職하였다. 金自庵은 文章家일 뿐 아니라 朝鮮朝 四大書家의 한 분으로 「自庵筆帖」과 「宇宙盈虛帖」의 模刊이 세상에 傳해지고 있다.

● 自庵의 詩歌文學

自庵의 詩歌로는 時調 5首와 景幾體歌인 花田別曲 6章과 漢詩가 있다. 먼저 國文詩歌를 살펴보고, 漢詩 몇 편을 번역해서 그의 文學世界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時調는 그의 作詩背景을 붙이고, 花田別曲은 지금까지 試釋이 없으니 만큼 통석을 붙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漢詩는 詩的 機能을 살펴 詩歌와 關係를 보코자 한다.

(1) 時調와 그 作詩 背景

- 1) 山水 누린골래 三色桃花 떠오거늘
내성은 豪傑이라 옷니븐재 들옹이
다고주란 건더안고 브레 들어 속과라.
- 2) 泰山이 높다하여도 하늘아래 피히로다.
河海깊다 ㅎ여도 싸우 히므리로다.
아마도 높고 깎플슨 聖恩인가 ㅎ노라.
- 3) 여기톨 더기삼고 더기를 예삼고
더어 기톨 멀게도 삼길시고
이몸이 蝴蝶이 되어 오명가명 ㅎ리다.
- 4) 나온다 今日이야 즐거온다 오늘이야
古往今來에 類업슨 今日이여
每日의 오늘 ㄱ툃면 브습성이 가시리.
- 5) 올히 달은다리 학 다리 되도록에

거른 가마괴 해오라비 되도록에

亨福 無彊 兮 億萬歲 萬 누리소서,

自庵의 時調를 一 할 때 字數에 있어서 정형적 字數律에 엄격하지 않았으나 형식을 지켜졌다. 그런데 다섯 수 時調 중에 歌番 4), 5)는 文集中에 詩作的 배경이 설명되어 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中宗 때 自庵이 玉堂에서 당직을 하던 어느 날 달밤에 촛불을 켜놓고 「綱目」이란 책을 읽고 있었다. 문득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누구냐 하고 내다보았더니 임금께서 廳上에 계시고 별감이 酒饌을 가지고 따라와 있었다.

君臣의 禮 쓰지말고 朋友로 대하라 :

金絳가 급히 뜰 아래 내려가 엎드린 즉 中宗께서 “이 같이 달 밝은 밤에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왔으니, 이 밤은 君臣의 禮를 쓰지 말고 朋友로 상대하자 하니 어려워 말고 내 곁으로 오라” 하였다. 이리하여 술상을 놓고 마주 앉아 수작을 하게 되자 中宗이 다시 말씀하기를, “글 외는 소리가 清雅하니 필시 歌曲에 능할 것이라 나를 爲해서 노래를 불러달라” 하였다. 自庵이 꿇어앉아 대답하기를 “오늘 聖恩이 古속에 없는 일이 오히려 옛노래나 지금의 곡조로 아뢰기 보다는 臣이

스스로 지어서 아뢰겠습니다” 하고 즉석에서 부른 노래가 歌番4) 이다.

再唱을 청하는 中宗 :

“나온다 今日이야 즐거온다 오늘이야
古往今來에 類업슨 今日이여
每日의 오늘갓^ㅏ면 모습성이 가시리”

中宗께서는 再唱을 청하셨다. 그것이 다음의 歌番5) 이다.

올히 달은 학 다리 되도록애
거른 가마기 해오라비 되도록애
亨福 無彊^ㅏ샤 億萬歲를 누리쇼셔”

노래 듣기를 마치고는 거듭 칭찬하면서 “그대에게 老母가 있음을 들었으므로 갓옷(貂裘)을 주는 것이니 가져다가 드러라” 하고 마루를 내려셨다 한다. 좋아라 오늘이야 즐거울사 오늘이야 유례가 없었던 오늘 날마다 오늘 같으면 성가신 일이 있겠는가. 거듭 노래하기를, 우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다리만큼 길어질 때까지, 검은 까마귀가 흰 해오라기처럼 변해질때까지 복을 받아서 억만년을 누리실 것을 기원하셨다.

나의 기쁨이요 임금을 축원하는 노래 :

첫 노래는 나의 기쁨이요, 둘째 노래는 임금에 대한 축원이다. 그의 시조 작품에서는 歌番1), 3)의 두 首

은 自然의 叙景을 淸化적으로 읊었고, 재기가 호걸스런 성품을 보인 작품이다.

(2) 花田別曲과 漢詩

天之涯 地之頭 一點仙島

左望雲 右錦山 巴川(봉내) 高川(고내)

山川寄秀 鍾生豪俊 人物繁盛

偉 天南勝地 景기 엇더히닝잇고

風流酒色 一時人傑再唱

偉 날조차 몇분이신고

河別侍 芷芝帶 齒爵兼尊

朴教授 손저이 醉中버릇

姜綸雜談 方勳軒擘 鄭機飲食

偉 品官齊會景기 엇더히닝잇고

河世涓氏 발버흔 風月 再唱

偉 唱和景기 엇더히닝잇고

○徐玉非 高玉非 黑白頓殊

大銀德 小銀德 老少不同

姜今歌舞 綠今長短 버린學非 소졸王只

偉 花林勝美景기 엇더히닝잇고

花田別號 名實相符再唱

偉 鐵 石肝觴이라도 아니 굿기리업더라

漢元今 以文歌 鄭韶草笛

或打鉢 或扣盤 間擊蓋臺

搖頭輾身 備諸醉態

偉 發興 景기 엇더하닝잇고

姜允元氏 스크랭딩소리再唱

偉 듯괴야 줌드로리라

○綠波酒 小麴酒 麥酒濁酒

黃金鷄 白文魚 柚子蓋 貼匙臺에

偉 ㄴ독브어 勸觴景기 엇더하닝잇고

鄭希哲氏 過麥田大醉再唱

偉 어네제 슬플저기 이실고

○京洛繁華야 너는 불요나

朱門酒肉이야 너는 도나

石田茅屋 時和歲豊 鄉村會集이야 나는 豆하하노라

지금까지의 각종 古詩歌集에 依하면 花田別曲의 轉載에는 誤字가 많다. 또 우리가 6章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原典에서는 4단락으로 구분한 上記의 '○'표를 보이고 있다. 먼저 原歌의 통석을 붙여 보기로 한다.

① 天涯 地角에 있는 한 점 섬이 왼쪽은 望雲이요,

오른쪽은 錦山, 巴川, 高川인데

山川이 아름다와 준수한 호걸들이 輩出되어 人物이

